



SARANG

뉴스 02

광주 동구-광주건축사회 '도시경관수립' MOU
광주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

뉴스 03

옛 전방·일신방직 밑그림은 '15분 도시'
고시와 함께 시행 돌입 광주건축물 심의 기준

오피니언 04

신·구 편집인 글

종합 05

사랑에서 _ 관계성 회복!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건축사회 3년만에 대면 총회 성료
주형신 건축사 43년 설계인생 은퇴

전북 지역 뉴스 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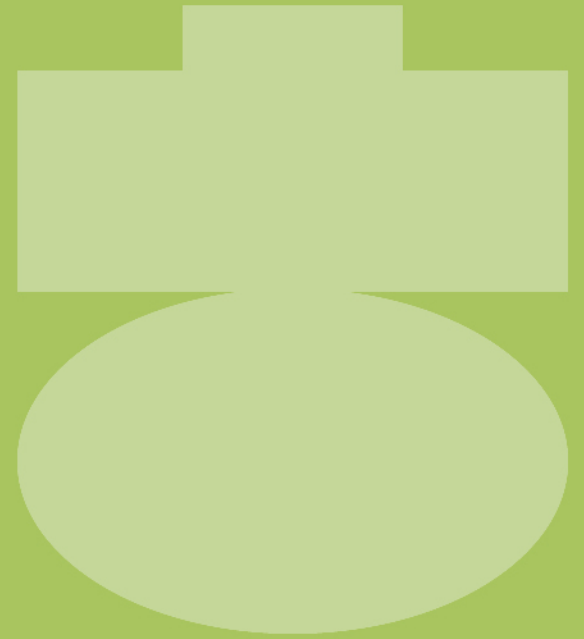
건축사속으로-익산지역건축사회
전북대 한옥, 이번엔 프랑스 진출

전남 지역 뉴스 10-11

건축사속으로-전남건축사회
전남 우수건축물 응모 작품 공모

오피니언 12

사랑&시선 _ 디자인 광주, 전문가 존중부터
한 편의 시 _ 춘사월의 향연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4.16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동구는 광주의 얼굴”, 품격있고 세련되게

광주 동구-건축사회-한국경관학회 경관계획수립 MOU

‘경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경관은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 중의 하나이다.’ 경관을 정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다.

경관 요소는 독창적인 건축물, 간판, 보행로, 가로 정비 등 외형적인 것 말고도 국토환경과 자연환경, 지역 정체성 등을 총망라한다. 즉 품격있고 매력있는 도시 요건으로는 보기 좋고 세련되고 안전한 요소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경관이 도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경관의 중요성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경관을 더욱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도 아름다운 광주라는 이름으로 경관 관리에 비중을 두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도시들이 경관을 비롯한 도시 이미지에 신경을 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산업화 시대에서 도시 이미지를 고민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가 언감생심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아름답고 재밌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 공간과 경관의 힘이 도시 경쟁력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서 주목받은 것이다.

광주건축사회와 광주 동구가 지역 경관의 정체성을 살려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광주 동구가 경관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도시 디자이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광주 동구가 광주 자치구 처음으로 자체적인 경관도시계획수립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건축사회와 광주동구, 한국경관학회는 MOU를 체결하고 경관도시계획수립에 적극 협력키로했다. 이날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핸드폰 조명을 켜고 경관 콘서트를 연출하고 있다.

것이다. 이에 광주 동구와 광주건축사회,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3월 22일 임택 광주동구청장과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을 비롯한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공무원, 건축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광주 동구 경관계획수립을 위해 4개 항의 협약 이행안에 서명했다. 3개 기관은 이를 위해 테스크 포스트팀에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도 지난 2월 21일 건축물 디자인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광주 5개 구청 중 자체 경관도시계획수립에 나선 것은 동구가 처음이다.

임택 광주동구청장은 “경관은 도시의 얼굴이고 첫인상이다. 우리나라 도시 경관이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광주천이 자리잡고 있는 광주 동구의 체계적 경관계획수립을 통해 광주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축사들이 광주 동구 경관계획수립에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테스크 포스트팀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체성 살리고 긴호흡으로 접근을

광주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

광주 동구가 미래를 위한 도시경관을 구정 어젠더로 선포한 지난 3월 22일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 의지를 과시했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장이 ‘더 나은 삶과 미래 가치로서의 경관을 주제로 기초 강연, 안장원 전 한국 디자인 산업연합회장의 ‘장소 명소화, 장소 브랜드’, 독일과 영

국 건축사인 페드로 페레이라 성균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가 ‘사례를 통한 유럽의 도시경관 정비’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배복환 동구 부구청장, 남승진 광주도시재생센터 대표, 배현미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 유창균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배웅규 한국경관회장은 “지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재생이 필요할 때이다”면서 “경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

에서 체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이나 공간, 즉 공공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환경디자인, 삼성 리움박물관 등 굴지의 국내외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안장원 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은 “브랜드화 전략은 시간을 갖고 긴호흡으로 접근하되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도시브랜드 전략에서 행정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되 단기 성과에 집착해 지휘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전문가에 맡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잘난체하는 행정 독선을 꼬집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ACC, MOU 체결

광주·전남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도시 건축문화 발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2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2회의실에서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유창균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부회장인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 이순미 광주전남건축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는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전남건축학회 등이 참여해 지역 건

축 관련 단체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도시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콘텐츠 교류와 장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에 올해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려 국내외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광주 시청 로비에서 열렸는데, 올해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2일 도시 건축문화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보 인사

△박주현 명 자문위원 △임태형 명 편집인

옛 전방·일신방직 밀그림은 15분 도시

도시계획 국제 공모 당선작에 덴마크 '모두를 위한 도시'

랜드마크 타워 높이 206m 제시 광주시 7월까지 협상 완료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활용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 컨셉과 규모 등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협상조정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국제지명초청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덴마크)의 '모두를 위한 도시'를 최종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이번 국제지명설계공모전은 옛 전방·일신방직 지구단위 변경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설계 계획이었고, 8곳의 세계적 건축가와 설계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15분 도시는 기존 근린지구나 생활권 등에서 한층 발전한 개념으로 도보 혹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에 접근 가능한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 도시 및 단지 설계 트렌드이다.

당선작을 설계한 어반 에이전시에는 랜드마크 타워 계획 설계권이 부여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결과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주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반 에이전시는 2013년 설립된 세계적 건축디자인 그룹이다. 박희찬 씨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과 아일랜드 더블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메셋 슈멜츠 마스터플랜, 더블린 뉴랜드파크 등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레이어 청담, 브라이튼 한남, 브라이튼 여의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옛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지명 도시설계계획 당선작 조감도. 광주시 제공

(서울 MBC 개발사업), 심플리 시티 내곡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다.

어반 에이전시가 제시한 옛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대지 이용계획을 보면 완전한 지속가능한 지역, 이웃 지역으로 지속 가능성 확산, 광주에서 네트워크 창조 등 미래 3대 어젠더를 제시하고, 모두를 위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융합에 중점을 뒀다.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30만평에 달하는 전방·일신방직 대지를 10개 구역으로 나눠 방직예술뮤지엄 및 체험센터, 그린 블루네트워크, 주거지역, 창조마을, 백화점, 문화센터, 학교 등으로 풀어냈다. 주거지역 2곳에는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고, 일부의 경우 최대 높이가 180m에 달한다. 층고 4m를 감안하면 45층에 달하는 규모다. 관심을 모은 랜드마크 타워 규모는 높이가 206m이며 상가 호텔, 사무공간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제시

됐다. 타워의 층고 4m 기준시 50층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50층 이상이 초고층 건물에 속해 건축비를 감안해 49층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공장 시설 등 역사 공간시설에 대한 보호 전략도 제안됐다. 공장시설 및 역사공간시설을 활용한 방직예술박물관 및 체험 센터로 구체화했고 해체되는 공장 시설물인 철강, 목재, 철도 레일 등을 특정 장소에서 다시 활용해 전방·일신방직의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밀그림도 포함됐다.

이번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국제지명설계는 상업, 업무,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을 위해 현재 공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도시적 건축적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다른 아니다. 향후 사업 시행 주체와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수정과 개선을 거쳐 실제 개발안이 확정된다.

고시와 함께 시행 들어간 광주건축물 심의 기준

주통경축 20m 이상, 부통경축 10m 전체 심의 기준 완화 최대 허용 15% 공고기간 따로 두지 않아 업계 혼선 광주시 4월 1일부터 적용

광주광역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성남갑 아파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손질한 심의 기준을 3년 만에 심미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새 규정을 바로 시행에 돌입해 관련 업계의 혼선도 우려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창의적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제도 일환의 건축물 심의 기준을 고시하고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여기에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통경축은 20m 이상, 부통경축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즉 아파트 동간 바람길 형성을 위해 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건축선 이격거리를 6m 유지토록 했다. 건축물 한 개 동의 최대 입면적은 3,500㎡로 규정했고, 세대수 20% 이상 특화 발코니에 설치나 특화 디자인 적용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입면적은 건축물의 높이에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말한다.

판상형 아파트를 지양하기 위해 아파트 입면 차폐도 최대치는 35m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운영 원칙으로 심의 기준에서 정한 기준치의 최대 완화 허용치는 각 조항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15%로 규정했고, 상업

지역에서는 최대 완화 허용치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 건축물 심의 기준은 공동주택 디자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치구 심의 대상 사업 규모까지 포함됨에 따라 또 다른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심의 기준 최대 완화 허용치 15%를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자의적 해석도 배제할 수 없어 형평성, 투명성 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민 생활을 비롯한 관련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치는 데 반해, 고시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가 관련 업체 혼선에 따른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의견을 들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기에 공고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6대 편집인 이임사 / 임기 : 2022. 4. 11. ~ 2023. 4. 10.



박주현 건축사
바움 건축사사무소

2014년 봄, 3월쯤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면서 예기치 못한 기회로 제2대 서재형 건축사님이 편집장으로 계신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함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셨던 3개 지역의 건축사님들과 교류한 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건축사 회원들의 작품들과 건축계 현안 이슈를 수집하여 신문을 통해 공유하는 일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켜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해 온 9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중 1년 동안은 편집인으로서 중책을 맡았지만 역대 편집인의 노고에 비해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작년 이맘때 마음으로는 팬데믹 시대만 지나면 3개 지역 편집위원들과 학생기자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인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전남일보 논설실장을 역임한 이용규 편집국장이 신문 발행을 함께해 주시면서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건축정보지에서 벗어나 건축문화계에 날카로운 비판이 더해져 신문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편집인 임태형 건축사의 세련된 디자인 능력과 책임감으로 편집위원들과 협업을 통하여 호남을 대표하는 건축 전문 월간 신문으로 독자 곁으로 성큼 다가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편집인에서 물러나지만 항상 애독자로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편집인 취임사 / 임기 : 2023. 4. 11. ~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2016년 모월 모일 역대 편집인을 역임하신 모 선배님의 부름을 받아 신문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그 햇수가 8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14년 차를 맞이하는 '건축문화사랑'에 덧입혀진 저의 시간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그 무게감과 깊이감으로 인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책임감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소통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회원분들의 다양한 작품활동과 사회참여, 시의성 있는 목소리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전달하며 여러 위치에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신문이 변화해온 부분은 무엇이이었을까? 바로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편집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돋보일 수 있도록 고민해온 과정은 시절의 trend를 반영하며, 안주하기보다는 진화해 가려 하는 건축의 '그것'과도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들을 더 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역대 편집인들의 노력과 책임감이 기인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선사한 소통 약재와 크고 작은 구조적 난제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노력해 오신 전임 박주현 편집인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신문편집에 관여하게 되신 이용규 편집국장님의 취임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문의 독자와 발행 관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자리에 임하게 되며 더욱 경청하고, 살펴보고, 신문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사회에 나온 건축학도



정가원
전 순천대 학생기자

중학생 때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진학했었다.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놀라웠다.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게 낯설고 고뇌의 시간을 보냈지만,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고 마감 후에 바라봤을 때 해냈다는 성취감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진정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는 회사에 다니면 무슨 일을 할까 스스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봤었다. '회사마다 다루는 규모는 다르겠지만 나는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게 될까? 학교 프로젝트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건물들을 디자인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

지고 회사에 출근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일 뿐이었다. 지침서를 처음 보고 진짜 실전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상사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혼나기도 하고, 야근도 하며 수정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회사에 다닌 지 3개월이 지나갔다. 아직도 누가 봐도 사회초년생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누군가를 이해시키기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워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배웠지'라는 아쉬움이 남았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프로젝트 지침서를 계속 읽어보고 한번 평면 조닝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틈틈이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학생티가 나는 계획이지만 상사분들의 도움도 받고 참고도 하며 성장하는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엄청난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축을 하는 나의 모습을 꿈꾸며 앞으로도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공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상징 자이언트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차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평가절감

내부기공을 최소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비/기계 기술인력/인사보유 (15명/20명/20명)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 · 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

사랑에서 _ 일백 번째

관계성 회복!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다. 지난 3년의 묵은 때를 훌훌 털어버리듯이 봄이 빨리 왔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축제는 이 봄을 들쭉날쭉하기에 충분한 듯싶다. 1921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개화시기가 빠르다고 하니 이례적이다. 아시겠지만 역대 첫 번째 개화시기가 21년이었고, 당시 16일이 먼저 피었다. 올해는 12일 빠르다고 한다. 100년의 기상통계를 봤을 때 이런 이른 개화가 21, 23년인 걸 보면 근래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모두가 느끼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3년의 코로나로 너무나 바깥세상의 꽃내음이 그리운 우리에게 잠시 일상을 접어두고 산수유, 매화, 목련, 개나리, 벚꽃, 진달래 등을 즐기기에 지금처럼 좋을 날이 있을까 싶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가장 경기침체가 심한 것 같다는 동료 건축사의 말처럼 마음 한편의 짐은 있지만 여전히 봄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우린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최근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은 고교 3년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다. 올해는 우연찮게 3년만에 신입생들의 MT를 간접스레 겪어보았다. MT라는 것 자체를 1학년뿐만 아니라 2,3학년 학생들도 처음 겪어본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어떤 행사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학생들 및 일반인들도 그로 인해 혼자만의 개성은 강하고 창의적이지만 단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초칭(같은 학년인데도 ○○씨라고 하는)도 어려워하는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MZ세대의 출현이 도래되었다. 이는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

한 그럽고 공무원들 또한 그런 사례가 많은 듯싶다.

우리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한다. 물론 이론적인 지식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세상에서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틀렸다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다.

MZ세대 이후, 2010년 이후의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기계와의 일 반적 소통에 익숙해져서 사회성 발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세대이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그 두 세대의 관계성은 멀어져가는 것이다. 3년여 간의 코로나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숙제로 내어 주었다.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에서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상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삶을 새롭게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며 어렵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강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유채꽃밭 사이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목적은 같지만 방향과 생각이 다른 사람.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스러움을 보이고 싶다. 그들과 함께 봄의 전령을 함께 맞고 싶다.



박종호 건축사 (자문위원. k21024@chol.com)

| 광주건축사회 2023년도 4월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1) 실시근거 : ①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교육 시간	교육비	장소
4월	25일(화) 14:00 ~16:00	전문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설계적용 실무	박현중 (광주장애인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	2시간	3만원	광주 건축사 회관 5층
	25일(화) 16:00 ~18:00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가이드	장현진 (국토안전관리원)	2시간	3만원	

(3)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역기소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피케이션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허만수
자문위원 박종근, 서재형, 정영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편집국장 이윤규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법,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격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구미 시립 양포도서관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서구 봉곡로 61 3층
 Tel. 062-676-2267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08번지 / 대지면적 : 10,063.00㎡ / 건축면적 : 3,529.81㎡ / 연면적 : 11,944.53㎡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점토벽돌치장쌓기, 로이복층유리

광주 건축물 층수 해제 팽팽한 찬반

광주시의회-광주마당 정책토론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지적도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과 (사)광주마당 2030포럼은 지난 4월 5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과 건축사, 시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이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 조진상 동진대 교수가 '광주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건축사인 이창률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건축물 층수 폐지와 디자인 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광주시와 총괄건축가는 "도시 경관 형성은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외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서 "특색있는 경관과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적 규제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창률 건축사는 "광주시 민선 7기에서 시행한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높이 규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광주만의 임의로 규정한 제도였다"면서 "이번 광주시의 층수 제한 폐지는 상위법에 정하는 층수 기준으로 환원이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진상 교수는 발제에서 "민선 8기 층수 제한 조치 폐지 주요 배경은 획일화된 도시, 콘크리트화

되고 박제화된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러나 광주의 병풍형 아파트가 민선 7기 이전에 허가된 것이어서, 층수 제한 조치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교수는 이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단순히 개발 규모만 확대하는 층수 제한 해제는 문제가 있고 당초 목적인 디자인 도시 광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선임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오주섭 처장은 "민선 8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한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는 재위촉하지 않았다"면서 "광주시 공무원 5명이 셀프 선임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투명한 절차 선임" 등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광주시교육청-광주건축사회 학교 설계용역 MOU

광주건축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난 3월 27일 '학교건축설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는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 이정선 시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건축설계 등 학교건축 설계용역비에 대한 현실화로 내실있는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됐다.

특히 일선 학교는 학교건축 설계용역에 대한 건축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양질의 설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위한 교무실·행정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건축사회와의 MOU 체결은 공간 혁신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은 "공공영역인 광주시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조금이나마 건축사의 현실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건축사회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건축사회 윤리, 전문 실무교육 성료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11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무교육은 윤리와 전문 분야로 나눠 총 3시간 진행됐다. 윤리교육은 광주건축사회 윤리위원장인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꼭 알아야 할 건축사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알기 쉽게 설명, 사업자이자 국가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건축사들의 실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올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단으로 활동하는 정 부회장은 5년간 대한건축사협회 총무 이사로 활동하며 건축사 의무가입 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무교육에는 송준영 한국 ESP 대표가 '기계설비 설계실무'를 2시간 동안 진행해 건축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거와 상업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사거리 코너부에 위치하는 양포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정보전달과 학습 및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에 더하여 경직된 가로에 긴장과 이완을 통한 생동감 있는 풍경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

사거리 코너부를 점유하며 넓게 비워진 부지에 가장 먼저 개입된 건축적 전략은 북서와 남동 방향을 가로지르는 도서관 가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0 그라운드 레벨에 선명하게 각인된 이 보행축은 자유분방한 형태의 지하층 매스와 그 흐름을 같이 하며 다양한 스케일의 외부공간들을 만들어 낸다. 외부공간에서 나타나는 움푹 꺼진 선긋 정원, 여유롭게 늘어진 경사로, 자유분방한 식재계획, 걸터앉기 넉넉한 스탠드형 계단과 그늘진 외부마당의 요소들은 도서관과 도로의 경계를 중화시키며 더욱 개방적이고 친근한 외부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3년만에 대면 총회 성료

감사에 김삼현 건축사...신협 부이사장에 김선영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4일 오전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 협회장, 안평환 시의원,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내외빈,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총회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려 공간의 가치를 더하며 공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걸어온 36년을 돌아보고, 본격적인 협회 의무가입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단결과 화합의 장이었다. 특히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아트' 금관 5중주단의 화려하고 시원한 사운드로 막을 올린 총회는 끝까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준철 건축사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유공 회원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정인재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조성한 장학금 수여, 신입회원 소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부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임기 2년의 감사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김삼현(길 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박수로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김 감사는 광주건축사회 신협 감사도 겸하게 된다. 신입 이사 7명(임경희, 정재한, 강필서, 문강욱, 진수성, 안천수, 정영법)도 선출했다.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남여 회원이 건축사현장을 낭독하고 있다.



김삼현 감사



김선영 신협 부이사장

이어 열린 광주건축사신협 제41차 정기총회에서 부이사장에 김선영 건축사, 이사에 정상채, 김준철 건축사가 각각 선출됐다.

박재홍, 한명석 부회장 연임



박재홍 부회장



한명석 부회장

광주건축사회, 신협, 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합동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 이사회는 각 기관 신규 이사진들이 참석해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광주건축사회 이사회는 박재홍, 한명석 부회장 연임을 의결했다. 2년 임기의 구협 의장에 동구 전홍현, 서구 강형선, 남구 이영문, 북구 정상채, 광산구 안성섭 건축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1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동구와 도시경관 디자인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학교건축설계 상호협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등에 대해 각각 승인, 의결했다.

주형신 건축사 현업 굿바이 43년간의 설계 인생 은퇴



광주건축사회 소속 주형신 건축사(사진)가 43년간의 설계 인생을 은퇴했다. 지난 1980년 건축사의 길로 들어선 이후 시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수행자로서 빛나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축사의 삶을

살아왔다. 1948년생인 주형신 건축사는 제대 후 건축사 사무소 견습생으로 출발해 당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남도청 공무원,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등을 거쳐 43년간 그의 생업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고 현업에서 은퇴를 하게 된 것이다. 세무서에 건축사사무소 폐업 신고와 사무소 명의로 개설한 주거은행 계좌도 해지하는 등 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건축문화사랑 편집국은 현업을 은퇴한 주 건축사의 소식을 듣고자 했으나 인터뷰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주 건축사는 "43년간 설계 인생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본연의 역할에서 충실하지도 못해 부끄러운데, 전화로 찾아주신 것은 너무 고맙지만, 오히려 내 이야기가 후배 건축사와 협회에 도움이 안 되니 정중하게 사양함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의 현업 은퇴에도 불구하고, 면허증 대여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꺼내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주 건축사의 아름답고 깔끔한 처신은 건축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는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주형신 건축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43년간 건축사의 삶을 축하했다.

광주건축사회 비엔날레 티켓 지금

광주건축사회는 광주비엔날레(2023.4.7.~7.9.) 티켓 400장을 구입해 회원 200명에게 선착순 지급에 들어갔다. 비엔날레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사무처에서 수령하면 된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김기수 건축사 / CNS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 6층
Tel. 063-226-8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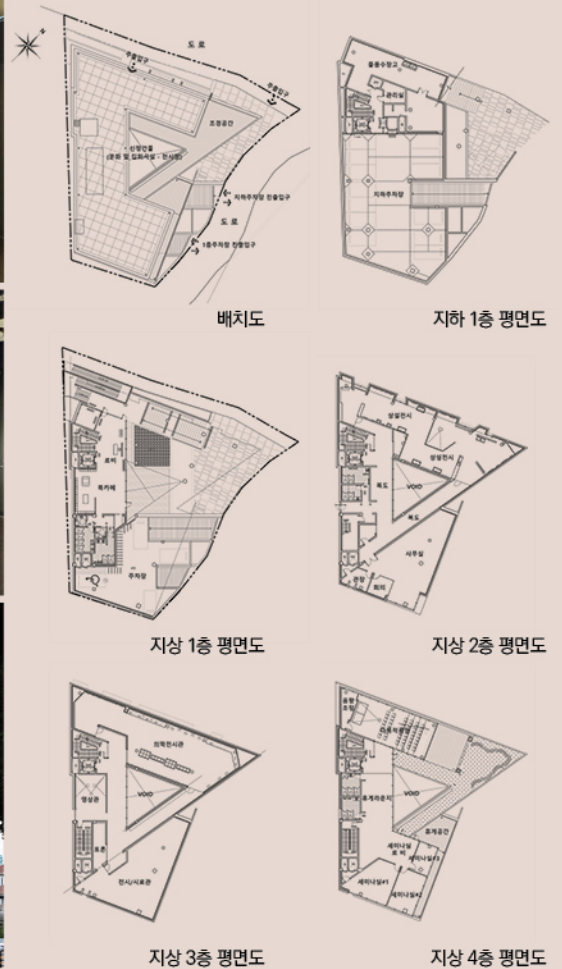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4-27 / 대지면적 : 1,045.0㎡ / 건축면적 : 626.27㎡ / 연면적 : 2,752.61㎡
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 주용도 : 전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징크

계획안에 중점을 둔 세 가지 키워드는 열린 공간, 기독교 상징적 가치구현, 간결한 형태이다.

첫째, 들린 공간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필로티 건물은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열린 공간을 표현하며, 시민들을 향하여 “와 보라”라는 건축적 언어를 표현하였다.

둘째, 기독교 정신을 담은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로서 삼각형 중정을 만들어 기독교의 상징적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며,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셋째, 간결한 형태와 입면으로 기념관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삼각형의 중정은 기독교의 가치인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담았다. 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중정공간을 기념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작동시키고자 하였다.



화합의 장 연출한 전북건축사회 총회

감사에 최태규 건축사 선출

전라북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정인재 광주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회원 495명 중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사진) 지난해에 이어 대면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안건처리나 임원 선거 등에서도 협회 의무가입시대를 맞는 회원들의 기대감으로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깔끔한 총회장, 꼼꼼하게 챙긴 영상자료들은 행사장을 빛내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회장의 구수한 내외빈 소개 멘트는 참석자들

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박진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름다운 건축은 미래 자산이자 먹거리이다. 건축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야한다”면서 “의무 가입시대 개개인 유불리를 떠나 나보다 함께 우리의 자세로 건축의 전복을 만들자”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영상으로 격려사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으로 전라북도건축사회 총회를 축하했다. 이들은 “전북 미래를 세워가는 데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건축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적극적 협조를 당



부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태규 건축사(다다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고 이사 11명과 대의원 14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최태규 감사

건축사속으로

① 익산지역건축사회

하나된 우리, 시민 공간의 행복 책임져요

전라북도건축사회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시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에 띈다.

김경태 익산지역회장은 “우리 지회는 전북건축사회의 중심에 있다”면서 “회원 모두 하나 된 활동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의 ‘자랑’ 대로 익산지회는 전북 14개 지회 중 전통이나 지회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익산지회를 관통하는 것은 원팀과 동반자 정신이다. 회원들은 사업 자임에도 서로 경쟁자보다는 협력자로서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이러한 기조는 회원들을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냈다. 국가 공인 건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알리는 대외 언론 매체 기고와 익산시에 수년째 매년 500만원씩 지정기탁과 소외 이웃을 향한 연탄 전달 등의 사회 공헌활동은 익산건축사회를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대외 활동의 동력은 회원들의 하나된 의사 결정과 십시일반의 따뜻한 마음이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우선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전 회원이 참석하는 회원의날은 지회 활동과 정책 공유는 물론 회원 상호간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지회의 활발한 대외 활동은 익산시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한 전문가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원천이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감리 수의계약은 익산건축사회 추천을 통해 진행하는데, 전북지역협회에서는 유일하다. 건당 2,000만원 한도의 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15억 수준에 달해 회원들에게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협회와 행정의 유기적 협조는 익산시의 계약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얘기이다.

익산건축사회는 지난 1968년 출범했다. 당시 이리시와 익산군으로 분리된 터라 따로 운영하다, 지난 1995년 양 시군 통합 이후 이리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건축사지회는 쉼이 쌓아온 연륜을 바탕으로 전북건축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은 37세 막내부터 80대 초반까지 총 52명이다. 회원 수는 군산과 같은 규모로 전체 회원(504명)의 10% 선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건축사회장을 2명이나 배출한 지회로서 자부심도 크다.

익산건축사회는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매월 회장단과 익



전라북도건축사회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김경태 회장(사진 앞 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회원들이 사랑의 연탄 배달 전달 행사 모습. 익산지회 제공

원팀·동반자 정신 가족적 분위기 회원 30대부터 80대까지 52명 활동 지역사회 적극 봉사로 선한 영향력 전문 영역 특화로 활로 찾기 고민 중

산시 주택과장 간담회, 6개월에 한 번 익산시 건설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협회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행정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많게는 매년 몇천만원에 이르는 업무대행 미수금을 해소한 것은 전국 건축사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역시 인구 감소에 의한 미래도시 발전과 대책 마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원이 많이 배출되고 행정 압박, 건축문화창달에 대한 자긍심이 퇴색하고 있다”며 “새로운 건축사상을 통해 각자 영역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고민과 대안 모색에 진지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익산 설계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익산 설계 감리시장의 경우 감리의 경우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설계는 40억원에서 45억원 수준이다. 다시 김 회장의 얘기이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확정되긴 했으나 입지가 완주군과 겹쳐 있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설계업체들과의 연결로 인해 익산건축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몫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택지개발계획도 없고 땅도 없어 그리 전망은 밝은 편은 아닙니다.”

익산지회는 침체된 건축 설계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건축사 영역 특화이다. 이를테면 건축사들이 학교건축, 호텔, 아파트, 대단위 공공시설, 감리 등 영역을 세분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는 건축사 1세대나 1.5세대는 캐드 운영이 어렵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영역을 특화하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 운영도 합동, 연합으로 하면 1인 건축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챗GPT 인공지능시대에서 건축사의 역할 위축보다는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에 방점을 두고 지회 차원에서 부단하게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인구 감소는 익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주제가 큰 이슈는 본 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들이 하나 된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나 내부 생존을 위한 노력들은 지회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중소도시 건축사들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가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전국 모든 건축사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하는 기분 좋은 출장이었다.

전북대, 프랑스 주요 도시에 한옥 짓는다

전북대-전주시-케이가든협회와 협약 맺고 첫 유럽 진출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이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옥을 수출한다. 전북대는 지난 3월 14일 양오봉 총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프랑스 케이가든협회 레지스 주비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주요 도시에 한국 정원 조성을 위한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가 그동안 베트남,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 정원 조성에 이어 유럽에 진출한 첫 사례이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 전북대, 프랑스 케이가든협회는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전통 정자와 전통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 및 연구자 교류 및 학술교

류,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전북대는 국가의 전통건축기술인 한옥의 부흥과 확산을 위해 한옥건축 기술력도 수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진 및 목재 등의 재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옥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베트남,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에서 공사 중에 있다.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 수출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옥을 통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전북대는 한옥 특성화 캠퍼스인 고창캠퍼스를 중심으로 한옥교육과 생산, 창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 부고
 - 박기두 건축사 / 나한 건축사사무소 / 본인 별세 - 2023년 03월 12일(화)
 - 박현규 건축사 / 공간지음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3년 03월 30일(목)
 - 안 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허브 / 장인상 - 2023년 04월 04일(화)

일로일로카페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25, 301호
Tel. 061-285-790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636번지 / 대지면적 : 3,086.00㎡ / 건축면적 : 399.70㎡ / 연면적 : 467.46㎡ / 건폐율 : 12.95 %
용적률 : 15.15 %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마감

건축사속으로

① 전남건축사회

지난 4월 13일 오전 무안 남악 전남개발공사 7층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지회장실에서 한형민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열렸다. 지난 3월 천안 용벽 붕괴 사망 사고 이후 발주처, 설계, 감리, 시공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방향 움직임과 실무 준수 경각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역대 회장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이사들의 표정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한형민 회장

회의실 벽 위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사진은 전남건축사회의 뿌리깊은 역사를 보여준다. 1986년 시도분리 이후 김광호 회장부터 조연준 직전 회장까지 전남건축사회의 토대를 만든 주역들이다.

전남건축사회는 1965년 건축사 31명을 중심으로 태동해 광주건축사회관 건립 등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러다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31명으로 재출범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전남건축사회는 현재 385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37년만에 10배가 넘는 성장에도 전남건축사회는 또 한 번의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건축사회는 이러한 흐름에서 건축사 처우와 위상을 강화할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도 개선만이 전남을 비롯한 지방 건축사들의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어서다. 30년 전보다 더 못한 민간건축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기준, 신고 건축물 감리제 등 법제화가 주요 현안이다. 이것만이 좁은 시장을 놓고 오로지 수수료에만 집착, 세살깎기식의 설계비 덤핑, 무료 상담, 무료 설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한형민 회장은 끊임없이 본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 8일 전남건축사회 정기총회 때 석정훈 본회 회장이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와 민간 대가 기준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혀 다소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전남건축사회는 회원 생존권과 위상 강화 노력 못

기본에 충실하고, 제도 개선에 전력 투구



전남건축사회는 건축사 처우와 위상을 강화할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남악 전남건축사회회장실에서 한형민 회장과 이사들이 역대 회장들 사진을 배경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도시와 지방협회 부익부빈익빈 심화 신고건축물 감리제 등 법제화로 업역 확장 전남건축사회관, 회원의날 제정 공감대 넓혀

지않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지역건축사별 건축문화제 개최와 함께 최근 몇년동안 눈에 띄는 것은 전남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점이다.

한형민 회장은 "우리 지역은 도시, 농어촌, 소도시로 구성돼 설계 시장 규모도 크지 않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 1인 건축사들이 많다"면서 "건축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연간 2,000만원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부는 조직의 실패할 같은 지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다. 순천과 목포를 비롯한 도내 12개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회의 현안 해법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이끌어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동호

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회원 385명 중 100여명에 달하는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사 위상에 중요한 전남건축사회관 건립과 회원의날 제정에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챗GPT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회장은 건축사헌장 준수가 결국 건축사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생존을 위한 지름길임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회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공된 건축과 관련해 사망사고나 다쳤을 때 이 책임은 건축사도 집니다. 예를 들면 수십년이 지난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계-감리 현장조사를 법 규정에 맞게 철저히 해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의 해법이라는 원칙론으로 그려가는 전남건축사회의 선이 '희망의 씨앗'으로 싹 틔우길 기대한다.



무안군 일로읍 인근 낮은 평야에 위치한 신청 대지는 현재 일로일로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주께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넓은 마당이 있는 공간을 요구하여 계획했다.

건물배치 및 공간계획은 도로와 대지는 45도 정도 기울어진 형태로 본 건물 매스는 도로측으로 설정하여 안정감을 확보하였고, 대지 측은 가벽을 활용하여 대지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자연스런 각각의 다른 공간이 생성되어 건축주께서 요구한 공간을 확보했다.

건축물의 동선계획은 본관동과 별관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공간을 연결하는 외부 연결다리로 연속되는 동선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전남 우수건축물 응모 작품 공모

도내 사용승인 건물대상 10건 선정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남도가 지역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건립시기에 관계 없이 도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수 건축물을 시상한다. 시상 규모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 10건 내외이다. 대상, 최우수, 우수상의 경우 건축주에는 기념 동판과 상장, 설계자, 시공자에는 상패와 상장이 수여된다. 입선 부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는 상장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건축물 수상작 설계자는 민간 전문가 선정시 우선 고려된다.

신청 방법은 공모 및 추천에 의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공공건축팀으로 하면 된다.

접수 서류는 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이다. 작품 설명서에는 건축개요, 설계의도, 전경사진(3컷 이상),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포함된다.

우수건축물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현지 확인 심사를 진행한다. 우수건축물 결과는 오는 10월 중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전남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4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전라남도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를 모집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

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등록자격은 공고 마감일(2023.4.26.)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설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다. 등록 신청은 오는 4월 26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군에 통보된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이종돈 건축사
이룸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9

• 전입

- 최환석 건축사 / (주)신화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 60호

• 변경(소재지)

- 김원석 건축사 / 이슬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1, 2층
- 박병수 건축사 / (주)토은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8, 2층
- 박영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경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9-1, 4층
- 이영은 건축사 / (주)화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한빛로 262, 스마트 프라자 201호
- 선민철 건축사 / 이선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65-13, 1층
- 윤정환 건축사 / 신흥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대석길 65, 201호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행명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보드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드

검색

DK | 주대 광 판 벨 | 주디케이보드 | 고객센터 1855-2240

사랑&시선 _ 세 번째

디자인 광주, 전문가 존중부터

광주 지역사회가 건축물 층수 관리 해제 발표로 논란이 뜨겁다. 임동 전방·일신 방직 부지개발, 광천동 재개발, 북동 뉴타운사업 등 굵직한 개발사업과 맞물려 지역사회 이슈를 받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건축물 층수와 경관은 순망치한(壽亡齒寒), 즉 이가 시리면 잇몸도 시려울 만큼 서로 보완적 관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유재산과 공공재로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해 병립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광주의 사방을 점령하고 있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는 빛고을의 인상을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외부에 비춰지게 했다. 회색 아파트 이슈가 가열되자,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제한' 지침을 깜짝 발표했다. 임의규정에 의한 전격적 시행이라 전국적 이슈의 중심에 섰다. 시정 책임자의 도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있어 휘발성이 강해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이 관리 지침이 창의적 건축물을 저해하는 규제의 프레임으로 1년 8개월만에 상황 종료로 맞게됐다. 엄밀히 말해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니 철폐도 아니고 원상회복이 맞다.

그렇다면 지난 2021년 7월 층수 관리 시행과 함께 허가받은 공동주택단지가 과연 착공이나 완공된 것이 있는가? 과문해서 모르긴 해도 한 건도 없다. 오히려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사업자들이 층수 완화 기대감으로 사업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광주시의 층수 관리로 '34층 논란'을 부른 쌍촌동 호남대 부지도 민선 6기에서 사전협상으로 허가를 받아, 민선 7기 착공 단계에서 30층 적용을 받아야 했다.

건물 층수 규제로 광주가 '병풍형 아파트 도시'라는 도식은 작위적이다. 팩트도 틀렸다. 사실 전 세계적인 도시계획 경향은 층수나 용적률보다는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현 정부에서도 건축물을 도시자산으로 인식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화 당시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도 민선 7기에서 디자인 광주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광주시 정책 입안자들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좌표에 의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다. 실례로 광주도시계획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스태프들이 민선 7기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 정책을 밀어붙였고, 현

제도 광주도시계획정책을 직간접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과 2년도 안 돼 '30층, 40층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획일적 도시 정책'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과 소신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다만 속뜻을 감춘 채 현란한 수사로 강변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이러니 지난 2월 층수관리 지침 해제가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오해를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침 해제가 이어 추진한 옛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이용계획 국제 지명 설계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사시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광주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복합소평몰에 맞춤형 발표로 디자인 운운하며 '층수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구나' 하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건축사와 행정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동반자이다. 그런데 광주시의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관련 단체나 전문가 협의는 그저 면피용에 불과할 만큼 도시디자이너로서 예우는 없다.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어가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총괄건축가는 전방·일신 방직 부지 국제지명설계공모 등 현안에 대해 건축사회에 의견을 묻고 사전 논의나 협의를 했어야 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힘이 될 지원군은 지역 건축사회이다. 총괄건축가가 지역 건축사회와 건축단체에 거리감을 두는 것은 아쉽다. 총괄 건축가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사들과 소통한다고는 하나, 지역건축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주기 바란다.

광주시 안팎에서 들려오는 말 중에는 층수 관리해제 이후 후속 작업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경관계획안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미래 품격있는 광주를 만드는 틀이기에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함에도, 지역에서 관련전문가들의 협조를 받기 쉽지 않은 이유가 크다.

광주시는 일부 건축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몰이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고 특수관계 대상으로만 건축사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곳곳한 목을 풀고 관련 단체를 존중하고,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이 만들어가고 싶은 '디자인 광주'도 건축사회와 관련 단체를 건강한 시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줄 때 가능하다. 손바닥도 맞닥뜨려야 소리가 난다.



이용규 편집국장

한 편의 시

춘사월의 향연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겨우내 움츠렸던 꽃봉오리
이산 저산 온 천지에
화사한 벚꽃들이
평평 터지는 소리가
꽃가에 쟁쟁하다

벚꽃이 세상에 알리는 것은
일상 일이 슬프고 괴롭더라도
한번 피고 지는 꽃처럼
활짝 웃고 잊어버리라는 뜻

눈 깜짝할 사이 피고 지는
봄날의 하얀 꽃들처럼
순간적인 삶이 끝나고 가면
파란 잎으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생기 있는 자연으로 돌아갈찌니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희망과 기쁨을 안고
춘사월을 맞이합니다.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문의전화 : 061-334-8836